

한국어의 품사

Корей тіліндегі сөз
таптары. Өзгертін, өзге
рмейтін сөз таптары

Сәдір Бибінұр

수식언

다른 품사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품사

관형사

'체언을 수식하는 낱말'이다. 조사도 붙지 않고 활용할 수도 없다. 참고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어서 만들어진 어절이나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을', '-은'이 붙어서 만들어진 어절은 문장 성분상 '관형어'이기는 하되 품사상 '관형사'는 아니다.

'이', '그', '저', '무슨', '별의별', '새', '헌' 등의 예가 있다.

부사

한국어에서 부사는 '용언이나 문장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품사'를 말한다.

부사형 어미로는 -이/히, -게 따위가 있다

부사는 모든 문법서에서 주요 품사 범주로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의는 다른 연구 대상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부사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라 부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부사의 범위 한정 문제나 하위 구분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서조차도 혼선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글 ?
? ?
나 와 너
한국어
우리가
? ?
어떻게 배울까 ?

관계언

문장 안의 다른 성분과 견련되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붙는
낱말.

조사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힘든 부분 중 또 하나. 한국어의 조사로. 원래 이런 성분들이 외국인들한테 진짜 힘들었다. 굴절어의 동사 변화라든지.

조사를 별도의 낱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미로 볼 것이냐 역시 한국어학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는데, 1985년의 통일 학교 문법에서 낱말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감탄사

품사의 일종. 감탄할 때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을 나타내는 것으로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 경우가 많다. 역시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유행어가 대개를 차지한다. 문법적으로 감탄사는 단어 하나가 문장을 구성하는 품사로, 그 동시에 다른 문장에 안긴 문장의 형태로밖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점이 의성어, 의태어와 감탄사의 차이점이며, 이 정의에 따라 인터넷 은어인 흠좀무, 충공깽 등은 감탄사가 된다. 의외로 언어학적으로 감탄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감탄사의 특성으로 인해 태고적의 원시인들이 쓰던 언어는 감탄사에서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목적을 띤 울음소리 및 함성, 특정 동물의 소리 등을 상황(목적)에 맞게 쓰던 관습에서 언어의 사회성이 태동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감탄사가 다루는 범주가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종래에 하나의 감탄사로 표현하던 것을 여러 개의 개별 표현의 연합으로 표현하는 최초의 문장이 탄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어의 신조어들 중 상당수가 감탄사와 감각 부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 역시 기능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시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 언어의 역사와 관련하여 감탄사 및 유사 표현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